

기장 일대의 포유류

오홍식·정영훈

(제주대학교)

요약

기장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 년 3~11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5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1. 서론

기장(도엽번호: 359132)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오·오(2005) 만·윤(2008), 하·김(2015)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기장(도엽번호: 359132)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모든 격자에 대하여 1 회씩 실시하였다. (그림 1), 조사방법은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E1	2019. 7. 1
E2	2019. 7. 2
E3	2019. 7. 5
E4	2019. 7. 3
E5	2019. 7. 4
E6	2019. 7. 5
E7	2019. 7. 3
E8	2019. 7. 3
E9	-



그림 1. 기장 일대의 도엽

3. 결 과

3-1. 전체 포유류 현황

기장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5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이 2 종, E2 가 3 종, E3 이 3 종, E4 가 2 종, E5 가 1 종 E6 가 1 종이었다.

표 2. 기장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고양이	-	-	○	-	-	-	-	-	-
너구리	-	-	-	○	-	-	-	-	-
수달	-	○	○	-	-	-	-	-	-
멧돼지	-	○	○	-	-	-	-	-	-
고라니	○	○		○	○	○	-	-	-
합계(총 5 종)	1 종	3 종	3 종	2 종	1 종	1 종	0 종	0 종	0 종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기장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4 종, 수계에서 1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4).

표 3. 기장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 (논, 밭, 과수원)	수계 (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고양이		○	-	-	-	-
너구리		○	-	-	-	-
수달		-	-	○	-	-
멧돼지		○	-	-	-	-
고라니		○	-	-	-	-
합계(총 5 종)		4 종	0 종	1 종	0 종	0 종

표 4. 기장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굴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고양이	1						1		
	너구리	1		1						
	멧돼지	6		2						4
수계(하천, 저수지)	고라니	8	2	2				3		1
	수달	2	2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기장 도엽에서 조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이 확인되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표 5).

표 5. 기장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출현, - :미출현)

격자	종명	수달 1	
E1		-	-
E2		○	B
E3		-	-
E4		-	-
E5		-	-
E6		-	-
E7		-	-
E8		-	-
E9		-	-

표 6.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종(수달, 담비, 삥, 하늘다람쥐, 산양)의 서식지 판단 기준표

종명	기호	내용
수달, 담비, 삥, 하늘다람쥐, 산양 (공통)	A	반경 125m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리가 발견되고 실체가 1 회 이상 확인됨
	B	반경 125m 이내에 동일종의 서로 다른 시기의 동일흔적(배설물, 발자국, 식흔, 털 등)이 2 곳 이상 다른지점에서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C	반경 125m 이내에 서로 다른 종의 흔적 또는 실체가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1 급과 2 급이 확인된 경우, 1 급 서식지로 판단
	D	반경 125m 이내에 동일종의 2 개체 이상이 발견된 양호한 지역
	E	어린 새끼와 어미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서식 환경이 양호한 지역 (번식 활동 지역)
수달	F	장기간에 걸쳐(최근 배설물 포함) 반복적으로 남겨진 수달 배설물 무더기(수달 화장실)가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수역(하천, 습지, 저수지, 해안) 경계부에서 양안 20m 이내
하늘다람쥐	H	실체가 1 개체 이상 확인되거나, 최근의 배설물이 1 곳 이상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4. 고 찰

기장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 된 포유류는 총 5 종이였다. 산림 내 무인센서카메라 조사에서는 1 종(고라니)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기수역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 경우 군부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조사지역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저지대 및 산의 능선부와 하천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산림의 계곡부 및 저지대 농경지에서 고라니, 멧돼지 등의 서식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수달의 배설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지역의 철마산, 용곡산, 감단산 등의 산림 생태계는 비교적 좋은 서식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나, 사람의 출입이 잦아 인위적 간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대단위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일부지역은 서식지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개체군 감소가 우려되기에,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5. 종합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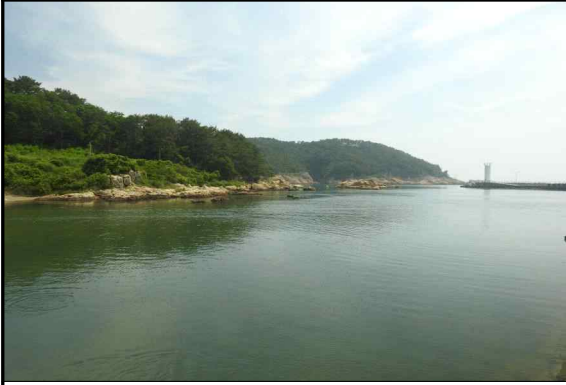





기장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 된 포유류는 총 5 종이였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구곡산과 감단산, 철마산 등이 지리적으로 도심과 연결되어 산림 지역이 고립되어 야생동물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대단위 위락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므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서식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지역은 서식지의 인위적 간섭으로 인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멧돼지가 동절기 먹이부족 및 영역다툼으로 인하여 도심가로 출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포유류도감. 제 7 권 동물편(포유류). 삼화출판사, 서울.
- 원홍구, 1968. 조선짐승류지. 과학원출판사, 평양.
-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서울. 75p.
- 환경부. 2001. 제 2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아산, 천안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과천.
- 환경부. 2005. 제 2 차 전국자연환경조사(부산 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과천.
- 환경부. 2008. 제 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부산 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과천.
- 환경부. 2012.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환경부, 과천.

[부록 1] 사진대지

	
사진 1. 조사지 전경	사진 2. 조사지 전경 (2)
	
사진 3.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된 고라니	사진 4. 두더지 흔적
	
사진 5. 수달 배설물	사진 6. 멧돼지 흔적